

MMA, 중국시장을 잡아라!

MR, 2005년까지 10만톤 투자 ... 가공부문 투자도 대폭확대

일본의 Mitsubishi Rayon이 MMA(Methyl Methacrylate) 사업의 중국전략 구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Mitsubishi Rayon은 중국에 MMA 플랜트를 건설해 Monomer와 Polymer 사업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일본과 타이 플랜트를 연결하기 위해 폴리머부터 순차적으로 생산거점을 확보하면서 모노머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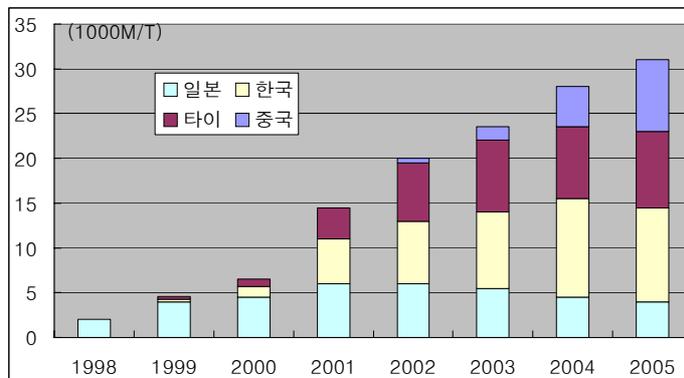
중국에는 MMA 폴리머 10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2005년 4/4분기에 가동하고, 2007년 중반까지 미국의 MMA 생산능력 15만톤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Mitsubishi Rayon은 2002년부터 시작하는 신3개년 경영계획(프로그램 US-2004)에서 Acryl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영자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인데, MMA 사업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itsubishi Rayon은 화성품·수지 사업부문의 설비투자계획을 보면, Acryl Powder는 일본 大竹에 1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해 2003년 2/4분기에 가동하고, 고급 Ester는 1만톤 플랜트를 2004년 4/4분기에 가동하는 한편 중국에도 1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2006년 2/4분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중국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 Sheet 1만톤 플랜트를 2005년 3/4분기에 가동한 후 2007년 3/4분기 가동 예정으로 1만톤 플랜트를 추가 건설하고, PMMA 성형재료도 2003년 4/4분기 4만톤 플랜트를 가동한 후 2006년 4/4분기까지 4만톤 플랜트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LCD 도광판용 PMMA 수요추이



중국에서는 현재 합작파트너, 플랜트 건설부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곧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MMA는 중국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한편으로, 생산기업의 수가 많고 설비가 노후화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용 도광판은 생산설비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MMA 수요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세계수요 신장을 견인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itsubishi Rayon은 도광판용 PMMA Sheet 세계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현지생산체제를 서두르고 있다.

MMA 모노머는 세계 최대기업인 영국의 Ineos가 2005년 이후 중국 Shanghai에 9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Mitsubishi Rayon은 빠른 시기에 폴리머로 사업기반을 확립한 다음 모노머 생산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